



Institution
of
Socialomics

News 4
상세보기

<특별호> 소셜오믹스 Special Brief 1호

소셜 헬스 개념 모색과 주안점

2019년 2월 28일 워크숍의 연구성과를 결산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소셜오믹스 연구센터는 연구팀에서 수행 중인 소셜 헬스의 개념을 비교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소셜 헬스’를 중심으로 한 융복합 학문분야의 이론적 정립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셜헬스는 (1)개인의 육체적·심리적·관계적 건강 상태 (건강, 행복, 만족감, 사회적 행동 등)와 같은 개인적 차원, (2)사회적 자본의 형성, 건강 커뮤니케이션의 증진, 정보교류와 네트워킹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차원, (3)사회적 도덕성의 제고 및 사회통합의 지향, 사회적 갈등과 차별의 해소와 같은 사회 구조적 차원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센터는 다학제적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소셜헬스 연구’의 중심점으로서 기능하고 이론적, 경험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Social Health란 무엇인가?

곽 기영 교수 연구팀 (국민대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여론형성과정과 소셜헬스

본 연구팀에서는 소셜헬스를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통합, 사회적 수용성, 사회적 기여가능성, 사회적 실현가능성, 사회적 일치감의 정도로 개념화한다. 이는 Keyes(1998)가 제시한 ‘사회적 웰빙(Social Well-Being)’의 개념과 접목 가능하다. 본 연구팀은 여론형성과정의 주요 변수로 사회적 소외감(Social Alienation)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상의 의견표명 환경과 소셜헬스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여론분위기가 변동하는 다양한 사회 현상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사회적 소외감과 이것을 해소하는 의견표명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표명하기 어려우며, 사회로부터 소외 받을 가능성이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통합, 사회적 수용성, 사회적 기여가능성, 사회적 실현가능성, 사회적 일치감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가와 사회적 소통의 질 감소, 의견표명 환경의 교란 등은 소셜헬스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Dalisy, F., Hmielowski, J. D., Kushin, M. J., & Yamamoto, M. (2012). Social capital and the spiral of sil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4(3), 325-345.
- Gil de Zúñiga, H., Jung, N., & Valenzuela, S. (2012). Social media use for news and individuals' social capital, civic engage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7(3), 319-336.
- Ifeagwazi, C. M., Chukwuorji, J. C., & Zacchaeus, E. A. (2015). Alien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oderation by resili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0(2), 525-544.
- Keyes, C. L.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2), 121-140.
- Lee, S., Chung, J. E., & Park, N. (2018). Network environments and well-being: an examination of personal network structure, social capital,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Health Communication*, 33(1), 22-31.
- Oh, H. J., Ozkaya, E., & LaRose, R. (2014). How does online social networking enhance life satisfaction? The relationships among online supportive interaction, affect, perceived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0, 69-78.

김희웅 교수 연구팀 (연세대 정보대학원)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셜헬스

소셜헬스란 개인이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과 다른 여러 사회현상과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소셜 헬스는 개인행동,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 및 소통, 그리고 사회적 활동의 4가지 차원으로 구분하며 각 차원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1)개인행동(사이버 범죄, 심리적 웰빙): 친 사회적, 도덕적 행동을 의미하며, 본인과 상대방에게 이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사회질서에 기여하는 개인행동을 의미함
- (2)사회적 지지(행복, 불행):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정보인 정서적 지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 받는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정보인 존중감 지원, 상호적인 관계에 소속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정보로서 관계망 지원을 내포하는 개념
- (3)사회적 관계 및 소통(온라인 시민행동): 건강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
- (4)사회적 활동(온라인 악플): 신체적으로 활동적이며, 사람과 사귀고, 사회성이 풍부한 생활을 하는 것

참고문헌

- Jung, Y., Pawlowski, S. D., & Kim, H. W. (2017). Exploring associations between young adults' facebook us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goal hierarchy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7(1), 1391-1404.
- 양승준, 이보연, 김희웅. (2016). 토픽모델링 기반 행복과 불행 이슈 분석 및 행복 증진 방안 연구. 「지식경영연구」, 17(2), 165-185.
- Son, J. E., Lee, S. H., Cho, E. Y., & Kim, H. W. (2016). Examining online citizenship behaviours in social network sites: a social capital perspective.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35(9), 730-747.
- 최지은, 이순규, 김희웅, 곽기영. (2016). 온라인 선플 활성화 방안 탐색: 시스템사고 접근 방식으로. 「지식경영연구」, 17(4), 191-213.

이철주 교수 연구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헬스 커뮤니케이션과 소셜 헬스

본 연구팀은 소셜헬스를 "건강은 개인적인 심리적인 차원에서 연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을 사회 환경에 위치 지은 후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하나의 시각으로 이해한다. 이를 위해 개인적인 차원의 건강 예측 요인과 개인의 사회연결망 및 커뮤니티 환경(community environmental factors) 등의 요인까지 함께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팀은 특히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 가운데 개인의 건강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행동과 사회적 자본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소셜 헬스의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참고문헌

- Kawachi, I., Subramanian, S. V., & Kim, D. (2008). *Social Capital and Health*. NY, USA: Springer.

송현주 교수 연구팀 (연세대 심리학과)

친 사회적 · 이타적 · 공감적 행동과 소셜헬스

본 연구팀은 소셜 헬스를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하여 정의한다. 즉, (1)공동체의 화합을 유지·촉진하기 위한 개인의 친 사회적 행동, (2)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로움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자원을 분배하는 행동, (3)사회적 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능력을 소셜 헬스의 구성요인으로 분석한다.

참고문헌

- Eisenberg, N., Fabes, R. A., & Spinrad, T. L. (2006). Prosocial Development. In Eisenberg, N., Damon, W., & Lerner, R. M.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646-718).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 Warneken, F., & Tomasello, M. (2006). Altruistic helping in human infants and young chimpanzees. *Science*, 311(5765), 1301-3.
- Williamson, G. M., & Clark, M. S. (1989). Providing help and desired relationship type as determinants of changes in moods and self-evalu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5), 722-734.

김학진 교수 연구팀 (고려대 심리학과)

사회적 행동, 자기조절적 능력, 그리고 소셜헬스

본 연구팀은 소셜 헬스를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자기조절적 능력과 결합하여 개념화한다. 첫째, 암묵적으로 사회적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집단에 대한 편견 혹은 내집단 편향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행동이나 타인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심리적 상태를 포함한다. 셋째,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이로움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적응적 수단으로서의 친 사회적 행동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체내부로부터의 생물학적 욕구관련 신호들과 사회적 제약/압력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들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참고문헌

-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4), 814
- Rand, D. G., Greene, J. D., & Nowak, M. A. (2012). Spontaneous giving and calculated greed. *Nature*, 489(7416), 427.
- Barrett, L. F., & Simmons, W. K. (2015). Interoceptive predictions in the brain.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6(7), 419.
- Zaki, J. (2014). Empathy: A motivated account. *Psychological bulletin*, 140(6), 1608.

김영훈 교수 연구팀 (연세대 심리학과)

건강한 개인, 사회 통합, 그리고 소셜헬스

본 연구실은 각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한 정신건강 및 사회적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관계가 차별과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소셜헬스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외외지상주의, 갑질,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 등 사회적 갈등과 차별에 기여하는 요인들과 함께, 문화적 특성, 가족 관계 등과 같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 Russell, R. D. (1973). Social Health: An Attempt to Clarify This Dimension of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Education*, 16:74-82.